

四象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少陽人編)

김종열* · 김경요*

Abstract

A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of Herbal Medicines Based on the Sasang Constitution (Soyangin Part)

Kim Jong-yol · Kim Kyung-yo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

We analyzed 45 types of herbal medicines for Soyangin, clinically applied in Dongyisoosebowon. In order to discover the standard of herbal classification for the Sasang constitutions, four concepts of Sasang Medicine were applied. These included 'Sadangron(theory of four groups)', 'Seungganggaehap(ascending-descending and gathering-dispersing)', 'Pyorihanyoul(exterior-interior and hot-cold)', and 'Hyungchiaekmi(fragrance, smell, bodily fluid and taste)'.

According to these analyzing methods of herbal properties, we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Herbal medicines for 'Soyangin' are characterized by descending energetics that reinforce the Yin Qi. The 'Exterior cold disease' is treated with herbs that descend the "Exterior Yin" in five ways: by releasing exterior, by resolving dampness, by clearing and transforming heat phlegm, by clearing heat, and by settling and calming the spirit. The 'Interior heat disease' is treated with herbs that raise the "Interior Yang" in three ways: by tonifying kidney Yin, by clearing heat, and by clearing heat and purging.

Key word: constitution, medicine, classification, soyangin.

I. 緒論

하는 바이다.

「四象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少陰人編)」¹⁾에 이어 四象體質의 정의에 바탕한 약성 분석 도구로서의 사상개념을 중심으로 소양인 약재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 고찰하여 각 개념들의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장차 미분류된 약재들 중에서 소양인 약재를 분류해 낼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보고자 한 결과 몇 가지 새로운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

II. 研究 對象 및 方法

1. 研究 對象

「東醫壽世保元·新定方」²⁾, 「更定方」 및 「東武遺稿·藥性歌」³⁾에 소양인약으로 나타나는 약재들 중 竹茹와 竹瀝⁴⁾, 桑椹子⁶⁾, 神麴, 雌豬肚, 小麥 등을 제외한⁸⁾ 45종을 분석 대상 약재로 하였다. 이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김종열 주소)전북 익산시 신동 311-2 익산원광한의원 전화)063-855-6086 e-mail) ssmcd@chollian.net

상 분석 대상 약재들의 출전 내역은 [표1]과 같다.

표 1. 研究 對象 藥材

出典	少陽人藥
新定方	甘遂,羌活,輕粉,苦參,瓜蒌仁,枸杞子,金銀花,獨活,牧丹皮,木通,沒藥,薄荷,防風,茯苓,覆盆子,山茱萸,生地黃,石膏,熟地黃,柴胡,連翹,牛蒡子,乳香,忍冬藤,豬苓,前胡,朱砂,地竹皮,知母,車前子,梔子,澤瀉,玄蔘,荊芥,滑石,黃蓮,黃柏 (이상 37종)
藥性歌	童便,麥芽,石花 (이상 3종)
更定方	蘆薈,芒硝,白茯苓,水銀,天花粉 (이상 5종)

(각 칸의 약재명은 가나다순)

연구에 참고한 주요 자료⁹⁾¹⁰⁾¹¹⁾¹²⁾와 연구 순서 등은 「四象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少陰人編)」¹³⁾과 같다.

2. 少陽人 藥性 分析 道具로서의 四象 概念

1) 四象論

소양인은 '脾大腎小'을 少陽人이라 한다¹⁴⁾는 四象論의 서술로써 정의되므로 소양인 약재는 약한 장인 腎을 보강하는 약재(腎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데 「東醫壽世保元·臟腑論」을 통해 大腸, 前陰, 口, 膀胱, 骨, 前四海의 液, 後四海의 精 등을 모두 腎黨으로 볼 수 있으므로¹⁵⁾ 소양인 腎藥이란 곧 이들 腎黨 전체에 작용하는 약재라 할 수 있다.

2) 升降開闔(升降聚散)

「保健省 東武遺稿」에 '腎病은 降氣가 적다'¹⁶⁾고 한 것이나 「東醫壽世保元·少陰人 泛論」의 '升降緩束'¹⁷⁾이란 표현 등을 통해 소양인약은 降藥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表裏寒熱

「草本卷」에 '少陽人은 穀食을 받아들이는 芣는 潤澤하지만 穀食을 排泄하는 大腸이 좁아서 熱氣가 생긴다.'¹⁸⁾고 하여 脾大腎小에 기인한 少陽人 裏熱證의 병리를 밝혔다. 다만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病證論의 제목에 裏熱病과 함께 表寒病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약재의 寒熱을 表裏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馨臭液味

「保健省 東武遺稿」에 '味는 腎으로 돌아간다'¹⁹⁾, '따라서 黃柏, 木通, 山茱萸 等屬은 그 맛이 깊어 흡입되어 腎으로 들어간다'²⁰⁾는 등의 구체적 서술이 나타나서 腎藥은 味藥임을 알 수 있다. 味는 씹어야 얻어지므로 깊어 굳어있는(深確) 것이어서 精을 충족케 한다고 볼 때 소양인의 味藥은 맛이 깊은 약재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Ⅲ. 分析 및 考察

1. 效能과 腎黨의 關係

「本草學」의 효능 분류에 의하면 연구 대상 약재 중 清化熱痰藥은 모두 少陽人 腎藥, 利水滲濕藥은 薏苡仁 외에 모두 少陽人 腎藥이었으나, 대부분

- 1) 김중열·김경요, 四象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少陰人編), 서울, 사상체질의학회지 13-1권, 2001년, 9면.
- 2)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1997.
- 3) 이제마 著·량병무 차광석 譯, 東武遺稿, 서울, 海東醫學社, 1999.
- 4) 죽여가 「四象新編」에 태음인 약재로 나와 있어 의심의 여지가 있다.
- 5) 元德必 編著·량병무 譯註, 東醫四象新編, 서울, 海東醫學社, 1999.
- 6) 상백피가 태음인약이고, 「東醫壽世保元草藥」에 '태음인은 뽕나무로 소주를 빚어마시면 좋다.'(2권 7통 23장)고 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 7) 李濟馬 原著·金達來 編譯, 東醫壽世保元草藥,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 8) 神麴은 여러 가지 체질에 속하는 재료가 들어가므로, 小麥은 밀이 태음인 음식이므로 각각 의심의 여지가 있고, 雄豬肚는 음식에 가까우므로 제외하였다.
- 9) 全韓國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 10) 辛民敦, 臨床本草學, 서울, 南山堂, 1986.
- 11) 李尙仁, 本草學, 서울, 修書院, 1981.
- 12) 申估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79.
- 13) 김중열·김경요, 위의 글, 9면.
- 14)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의 책, 436면.

15)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의 책, 441면.

16) 이제마 著·량병무 차광석 譯, 앞의 책, 165-166면.

17)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의 책, 456면.

18) 이제마 著·金達來 編譯, 앞의 책, 2, 6, 38, 68면.

19) 이제마 著·량병무 차광석 譯, 앞의 책, 159면.

20) 이제마 著·량병무 차광석 譯, 위의 책, 211면.

의 경우 한 효능 분류 내에 있는 약재들이라도 그 세부적 효능에 따라 체질 배속이 달라졌다.

즉 發散風寒藥 중 清熱補陰 효능이 있는 약재, 補血藥 중 補腎補血(補精補血)약, 瀉下藥 중 清熱 효능이 주요효능인 약재, 活血祛瘀藥 중 外治가 위주인 약재, 發散風熱藥 중 清熱이 주요효능인 약재, 清熱藥 중 清胃熱 및 滋陰 효능이 있는 약재, 補陰藥과 澁精縮尿藥 중 補腎이 주 효능인 약재 등은 少陽人 腎藥이었다. 한편 補氣藥, 溫裏藥, 溫化寒痰藥, 芳香化濕藥, 理氣藥, 止咳平喘藥, 養心安神藥, 強筋骨藥, 舒筋活絡藥 등에는 少陽人 腎藥이 없었다.

그런데 이들 약재들의 귀경은 표2에 나타나듯 腎經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기존한의학과 사상 의학의 장부론을 비교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표 2. 少陽人藥의 效能과 歸經의 關係

四象	歸經	肺	心	脾	胃	肝	腎/膀胱
效能		清熱, 利水	鎮心安神, 清熱	利水	清熱, 熱痰	清熱, 潛陽	補陰, 潛陽, 澁精, 利水

표2에서 少陽人 腎藥이 다양한 귀경 분포를 보이는 것은 주로 利水藥과 清熱藥 때문이다. 이는 臟象論에서 利水 작용을 肺脾腎 三臟의 작용으로 보므로 利水藥의 귀경도 肺脾腎이고, 清熱藥들은 주치증의 부위에 따라 더 다양한 귀경을 가지는 것이며, 사상의학에서는 이들 약재가 모두 胃熱과 降陰力不足에 의한 소양인 병증을 다스리고 그 소양인 병증의 근본 원인은 腎小에 있다는 관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利水滲濕藥 중 의이인은 水濕 停滯를 다스리기는 하나 아래로 利水滲濕시키는 약재가 아니라 폐 부위로 散濕시키는 약재이므로 少陽人 腎藥이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精은 臟象論이나 「臟腑論」에서 모두 腎이 주관하는 것으로 보지만 補腎藥 중에도 補陰藥과 澁精藥만이 少陽人 腎藥이고, 溫裏藥과 補陽藥에 분포해 있는 溫腎陽藥은 대개 少陰人 脾藥이다. 즉 補腎藥 중 補腎陰藥은 少陽人 腎藥, 補腎陽藥은 少陰人 脾藥이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補腎陽藥이 腎黨의 영역인 下焦를 따뜻하게 해 주

기는 하지만 그것이 精의 생성, 혹은 저축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藥性的 升降開闔(升降聚散)

1) 降表陰藥

소양인 表寒病의 치법은 '清裏熱 降表陰'으로 제시되었는데 여기서 '清裏熱'은 內熱外寒의 소양인 병증 특성에 따라 表寒病 중에 생긴 裏熱일 뿐이므로 주된 치법은 '降表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降表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약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처럼 解表降陰藥, 利水降陰藥, 清痰降陰藥, 清熱降陰藥, 重鎮降陰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 解表降陰藥 (發散風寒藥: 형개, 방풍, 강활, 독활)

강활, 독활은 補陰 효능과 解表 효능이 함께 있는 약재이어서 降陰力이 약한 소양인의 表證을 다스리고, 형개와 방풍은 밖으로 風寒을 물리치면서 안으로 清熱 효능이 있는 약재이어서 畏寒裏熱의 소양인 表病을 다스리므로 모두 소양인의 解表降陰藥이 된다.

(2) 利水降陰藥 (利水滲濕藥: 복령, 백복신, 택사, 목통, 저령, 차전자, 활석)

복령, 저령, 택사, 활석 등 利水藥들은 『傷寒論』 오령산 및 저령탕과 그 주치증을 통해²¹⁾ 소양인약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 목통은 導赤散을 통해,²²⁾ 감수는 結胸證과 대함흉탕, 심조탕을 통해²³⁾ 각각 소양인약으로 볼 수 있다. 이 약재들은 모두 『東醫寶鑑·小便門』에 나타나는 단방약들인데²⁴⁾ 이 곳에 제시된 연구대상 약재들은 감초, 황금, 익지인 외에는 모두 소양인약이었다.

효능면에 있어서는 복령, 백복신, 저령 등은 滲濕을 통해 상중하초의 병증을 두루 다스리고, 택사는 清熱利水하며, 차전자는 利水 효능과 益精 효능을 함께 가지고, 목통은 내외의 水氣와 血脈을 두루 통

21)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71, 66, 169, 266면.

22) 錢乙, 小兒藥證直訣, 중국, 강소과학기술출판사, 1983, 48면.

23) 蔡仁植, 앞의 책, 107, 121면.

24)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印文化社, 1999, 425-430면.

하게 하며, 팔석은 水氣를 상하로 통하게 해주고, 감수는 胸膈의 水氣를 下降시켜서, 모두 利水降陰을 통해 신장을 돕는 약재들이다.

(3) 清痰降陰藥 (發散風熱藥: 시호, 清化熱痰藥: 전호, 과루인)

「東醫壽世保元」에 소시호탕을 설명하면서 ‘清痰’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제마는 시호를 清痰藥으로 보았으며 또한 清化熱痰의 개념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²⁵⁾ 그런데 시호와 清化熱痰藥인 전호, 과루인 등은 모두 表證方에만 쓰여서 대부분의 清熱藥들이 表裏證에 함께 쓰이거나 裏證에만 쓰인 것과 대조적이다.

시호, 전호, 과루인 등은 胸膈의 熱痰을 清化시켜 陰氣가 下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寒熱往來, 咳嗽, 胸痞, 嘔逆 등 증을 다스리는 약재들로서 表證의 清痰降陰藥이다. 따라서 發散風熱藥과 清化熱痰藥 중 胸痞, 胸脇滿 등 주치를 가진 약재들을 소양인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清熱降陰藥 (清熱燥濕藥: 황련, 황백, 고삼)

황련, 황백, 고삼 등 清熱燥濕藥은 그 주치증인 설사와 陰瘡, 陰痒, 帶下, 疥癬, 濕疹 등²⁶⁾ 하초 병증과 피부 병증이 모두 습열에 의한 병증이라고 인식되어 왔으나, 煩燥, 痞悶, 心煩 등 흥격열증과 骨蒸勞熱을 다스리는 清熱滋陰 효능으로 볼 때 청열을 통해 滋陰에 이르게 하는 소양인 清熱降陰藥으로 볼 수 있으며, 주치증의 설사는 소양인 亡陰證 泄瀉로, 하초 병증과 피부 병증은 모두 소양인 병증의 險證인 陽毒發斑²⁷⁾으로 생각된다.

(5) 重鎮降陰藥 (주사, 수은, 경분)

주사는 鎮心安神하는 下向性 약재이고, 수은과

25)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의 책, 465면. “9-8 ...用 小柴胡湯 清痰燥痰 溫冷相雜 平均和解 欲其病不傳變而 自愈...” 여기서 小柴胡湯의 약재 중 寒性藥은 시호, 황금 밖에 없으므로 이들 약재를 清痰藥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6) 허준, 앞의 책, 1932, 1969면.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위의 책, 182, 186면.

2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앞의 책, 470면. “10-12 ...陽毒發斑·流注丹毒·黃疸 等病 受病之日 已爲危險證也...”

경분은 매우 質重한 금속 약재로서 陰氣가 고갈된 急證, 危證을 다스리는 강한 降陰藥들이어서 모두 그 약성의 하향성을 통해 소양인약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같은 金石類 중에도 소음인약인 적석지는 알루미음이 함유되어 가볍다는 점에서 質重한 金石類는 소양인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升裏陽藥

소양인 裏熱病의 치법은 清陽이 상승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때 清陽은 ‘裏陽升氣’²⁸⁾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치법을 ‘升裏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는 ‘升裏陽’이지만 작용하는 약성으로 보면 滋陰하고 清胃熱함으로써 들떠서 탁해진 기운을 가라앉히고 降陰力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어서 降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升裏陽의 목적을 위한 약재들은 크게 滋腎升陽藥과 清熱升陽藥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1) 滋腎升陽藥 (補血藥, 補陰藥, 滋精縮尿藥: 숙지황, 산수유, 복분자, 구기자, 석화, 동변, 清熱涼血藥 및 清虛熱藥: 생지황, 목단피, 현삼, 지골피)

숙지황, 산수유, 복분자, 구기자, 석화, 동변 등은 모두 「東醫寶鑑·精門」에 단방으로 나오는 약재들이고 腎臟을 補하는 작용이 주된 효능이며 다른 효능들은 그에 따른 2차적 효능이다. 그러나 本草學의 효능 분류로는 補血藥, 補陰藥, 滋精縮尿藥 등 여러 종류로 나타나며 각각의 부류에 속하는 약재 중에는 소양인약이 아닌 약들도 있다. 따라서 이들 補血藥, 補陰藥, 滋精縮尿藥 중에 그 1차적 효능이 補腎인 약재들만을 소양인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지황, 목단피, 현삼, 지골피 등 清熱涼血藥과 清虛熱藥 들이 血熱로 인한 出血證과 骨蒸勞熱을 다스리는 것은 滋腎 효능이 있어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약재들은 모두 滋腎을 통하여 清陽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滋腎升陽藥으로 볼 수 있다.

28)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앞의 책, 473면. 주19에서 재인용.

(2) 清熱升陽藥(清熱瀉火藥: 지모, 석고, 치자, 천화분. 清熱解毒藥: 연교, 인동등, 금은화. 發散風熱藥: 우방자, 박하, 清熱瀉下藥: 망초, 노회)

지모, 석고, 치자, 죽엽, 천화분 등은 그 주치증에 煩燥, 口渴, 譫語, 自汗 등 백호탕증을 전부, 또는 일부 갖추고 있으며, 귀경이 肺·胃로서 熱證이 흉격과 表部位에 나타난 병증을 다스린다. 『本草學』에서는 이 백호탕증을 氣分의 열이 흉격으로 전입되는 과정의 氣分熱證으로 보았으나, 이제마는 안으로부터 胸膈熱이 발산되는 소양인 胃熱證으로 보았으므로 그 치료약재들을 소양인 清熱藥으로 보았다.

한편 清熱瀉火藥 중에 태양인약인 노근은 다른 약재들과 비교할 때 동질성이 떨어진다. 『名醫別錄』에 수록된 약재임에도 불구하고 『傷寒論』에 쓰이지 않았고 『東醫寶鑑·湯液篇』의 주치증도 消渴客熱, 噎噎, 孕婦心熱, 易竭 등²⁹⁾으로 백호탕증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清熱瀉火藥 중 백호탕증이 주치증인가를 살펴보면 소양인 清熱藥을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교, 인동등, 금은화 등 清熱解毒藥은 주로 溫熱病에 熱毒으로 인한 癰疽, 斑疹, 泄痢 등 증을 다스리는 약재들인데 이들 주치증을 이제마는 소양인 中消 병증으로 보았다. 따라서 熱證의 癰疽를 다스리는 清熱解毒藥들은 모두 소양인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박하와 우방자는 發散風熱藥으로 분류했지만 실제로 발산 효능은 별로 없고 그 주치증인 頭目, 咽喉, 皮膚의 열증 역시 모두 소양인 中消 병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박하와 우방자는 금은화, 인동등처럼 清熱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상 清熱瀉火藥, 清熱解毒藥, 發散風熱藥들은 모두 胃熱을 맑히고 陰氣를 滋養하는 清熱滋陰 효능이 있어서 소양인 清熱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약재들은 大腸局의 陽氣가 火氣로 변하는 것을 다스려 清陽이 보존되도록 함으로써 소양인 裏熱病을 다스리는 清熱升陽藥이 된다.

또한 석고, 망초, 노회 등은 모두 清熱 작용을 통해 熱結을 풀어주어 瀉下시킴으로써 清陽의 보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清熱瀉下藥이다. 따라서 瀉下藥

중에 清熱이 주된 효능인 약재들 역시 소양인의 清熱升陽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소양인약들은 새로 설정한 약성 표현이 [기존효능 + 치법]의 형태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존 효능과 치법이 잘 연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청열약과 발산풍열약의 경우는 그 효능 기전이 다른 태음인 裏熱病의 치료 약재들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소양인의 병증 약리가 비교적 기존 한의학의 발달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裏熱病에 있어서는 그 동안 잘 구분하지 못했던 少陽人 裏熱病과 太陰人 裏熱病의 병증 약리를 명확히 구분한 결과로 평가된다.

표 3. 少陽人 藥材의 升降開闔表

少陽人 降藥			
대분류	세분류	옛분류	소속약재
降表陰	解表降陰	發散風寒	형개, 방풍, 강활, 독활
	利水降陰	利水滲濕	복령, 복신, 택사, 목동, 지령, 차전자, 활석
		逐水	감수
	清痰降陰	發散風熱	시호
		清化熱痰	진호, 팔루
	清熱降陰	清熱燥濕	황련, 황백, 고삼,
重鎮降陰	鎮心安神	주사	
	質重藥	수은, 경분	
升裏陽	滋腎升陽	清熱涼血	생지황, 현삼, 목단피
		清虛熱	지골피
		補陰	숙지황, 구기자
		齒精	산수유, 복분자
	涼隔升陽	其他	석화, 동변
		清熱瀉火	석고, 지모, 치자
		清熱解毒	연교, 인동등, 금은화, 천화분
		發散風熱	박하, 우방자
攻下	망초, 노회		

3. 藥性的 表裏寒熱

표 4. 藥性的 寒熱分布表

藥性	少陽表藥	少陽裏藥
溫熱	5 (22)	3 (14)
平	4 (17)	1 (5)
涼寒	14 (61)	18 (81)

29) 허준, 위 의 책, 2958면.

표4에 나타나듯 소양인약은 45종 중 32종이 涼寒藥이어서 상당히 높은 경향성(71%)을 보여주었으나 溫性藥도 8종이나 되어서 예외라 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런데 溫性藥의 내용을 살펴보면 숙지황, 산수유, 복분자 등 滋腎補陰藥 3종, 형개, 방풍, 강활, 독활 등 發散風寒藥 4종과 유향 등인데, 이 중 發散風寒藥은 소양인의 표한병을 다스리는 약재이고, 滋腎補陰藥이 쓰이는 陰虛證에도 背寒, 午熱 등 表寒證이 나타내므로 이들 溫性藥들은 內熱外寒한 소양인 병증에서 表寒(外寒)을 다스리는 약재들로 생각된다. 특히 發散風寒藥 중에는 清熱 효능을 가진 약재도 있고 역대 처방에서 대체로 清熱藥과 자주 함께 쓰이므로 안으로는 清熱하고 밖으로는 散寒하는 약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양인 약재는 裏證藥은 모두 涼寒藥이어야 하고, 表證藥은 溫性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內熱外寒의 병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약재이어야 할 것이다.

4. 藥性的 馨臭液味

소양인약은 대부분 香臭가 없어서 기가 깊이 함장된 약재임을 알 수 있으며, 숙지황, 산수유 등 보신약들은 그 맛이 깊어서 味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馨臭液味の 개념은 문헌 연구를 통해 논하기는 어려웠으나 소양인의 補腎藥의 이해에는 도움을 주었다.

IV. 結 論

소양인 약재 45종에 대해 四黨論, 升降開闔(聚散), 表裏寒熱, 馨臭液味 등 4가지 약성 분석 도구로서의 사상 개념을 적용하여, 「東醫寶鑑」과 「本草學」 등에 나타난 약성 자료를 분석하고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四黨論의 관점에서 약재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清化熱痰藥과 利水滲濕藥은 대부분 少陽人 腎藥이었고, 補氣藥, 溫裏藥, 溫化寒痰藥, 芳香化濕藥, 理氣藥, 止咳平喘藥, 養心安神藥, 強筋骨藥, 舒筋活絡藥 등에는 少陽人 腎藥이 없었으며, 나머지 약재들은 그 세부 효능에 따라 일부만이 少陽人 腎藥이 되었다.

2. 少陽人藥은 陰清之氣를保하는 降藥으로서 表寒病은 降表陰하는 약재로 다스리는데 清熱降陰 효능이 있는 發散風寒藥은 解表하며 降陰하고, 利水滲濕藥 및 逐水藥은 利水를 통해 降陰하며, 清化熱痰藥은 清痰을 통해 降陰하고, 清熱燥濕藥은 清熱을 통해 降陰하며, 鎮心安神藥과 質重한 金石類는 重鎮하여 降陰한다.

裏熱病은 升裏陽(升清陽)하는 약재로 다스리는데 補陰藥과 滋精藥 중 근본 효능이 補腎陰인 약재, 清熱涼血藥, 清虛熱藥 등은 滋腎함으로써 升陽하고, 散熱開竅 효능이 없는 清熱瀉火藥, 清熱解毒藥, 發散風熱藥, 그리고 攻下藥 중 清熱이 주 효능인 약재 등은 清熱로서 升陽한다.

3. 소양인약 역시 소양인의 체질 치법과 기존 효능 사이의 연결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어서 수곡의 출납에서 비롯되는 소양인의 병증도 비교적 일찍부터 인식되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4. 소양인약은 涼寒藥이 많지만 發散風寒藥과 滋腎補陰藥 중에는 表寒을 다스리는 溫性藥이 있었으며 이러한 온성약은 소양인 병증의 특징인 內熱外寒을 다스릴 수 있는 약재로 해석되었다.
5. 馨臭液味에 있어 소양인약은 대부분 香臭가 없어서 氣가 깊이 含藏된 약재임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1. 김종열·김경요, 四象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연구(少陰人編), 서울, 사상체질의학회지 13-1권, 2001년, 8면.
2.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3. 李濟馬 著·량병무 차광석 譯, 東武遺稿, 서울, 海東醫學社, 1999.
4. 元德必 編著·량병무 譯註, 東醫四象新編, 서울, 海東醫學社, 1999.
5. 李濟馬 原著·金達來 編譯, 東醫詩世保元草藁,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6.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7.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南山堂, 1986.

8. 李尙仁, 本草學, 서울, 修書院, 1981.
9.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79.
10. 蔡仁植, 傷寒論譯說, 서울, 高文社, 1971.
11. 錢乙, 小兒藥證直訣, 中國,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12.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印文化社, 1999.